

국민의당 합류 ‘전북 대표주자’ 정동영 前 의원

“변방 밀려난 호남정치 복원 선봉 서겠다”

정동영 전 의원은 유망한 방송 앵커에서 정치권에 입문, 국회의원, 최고위원, 당 대표, 통일부 장관, 여당 대선 후보 등을 지내며 정치의 정점에 섰었다. 하지만 지난 17대 대선 패배 이후, 진보를 기치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18·19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에 출마 했다가 연거푸 낙선한데 이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패배의 쓴잔을 마시면서 주춤했다.

지난해 6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하방, 씨감자를 가꾸면서 정치적 상처를 치유해왔던 그는 야권 분열 국면에서 국민의당 합류와 함께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일생을 건 도전에 나섰다.

그의 총선 출마는 전북 등 호남은 물론 전반적인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순창 복흥산방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신중하면서도 특유의 열정적인 목소리로 다시 희망에 대해 얘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돌아온 탕자라고 했다. 다시 정치 일선에 선 심정은. ▲성경에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마을 어귀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말없이 안아주시는 대목이 있다. 나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 사실 염치가 없고 송구스럽다. 하지만 민생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말없이 지켜보고 성원해준 고향 민심에 보답하겠다.

-총선 출마 선언에서 호남 정치 부활을 지적했다. ▲호남 정권이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호남 정권은 과거 입진왜란에서 동학혁명, 5월 민중항쟁을 통해 민주·평화·복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호남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싸우지 못하고 안주하면서 호남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당당히 싸우지 못하고 야당 내부의 패권에도 몸을 낮추고 있다. 호남 정신 복원의 선봉에 서겠다.

-더민주에 특정 지역 패권주의가 살아있다고 지적했는데. ▲영남 우월주의다. 거기에 굴복한 거다. 미국에서 인종주의를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지 흑인 우월주의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역주의는 영남 우월주의를 말한다. 호남 지역주의를 말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호남 정신은 이미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제 영남 지역주의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영남의 가치를 말해야 한다.

-호남 민심은 수도권에서의 연대 및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점이 중요하다. 지금은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말하는 주체는 지도부여야 한다. 막 입당한 사람이 현재 시점에서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전 대표가 더민주가 야권의 적통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적통은 DJ와 DJ 정신에서 시작한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일관되게 진보적 야당의 길을 걸어온 김대중 노선과 정신, 대통령이 돼서 이뤘던 가치와 업적에서 뿌리가 시작된다. 문 대표에게 걸림돌은 김대중 정신을 꽃 피워 올린 호남의 대지를 땀개줬다는 것이다. 적통을 말하기 전에 영남 패권주의에 갇힌 점에 대해 본인이 성찰해야 한다.



더민주 영남 패권주의의 극복해야

정체성 상실이 야권 분열 원인

野 분연히 일어나 사드 배치 막아야

-야권 분열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면. ▲친노 패권주의와 야당의 정체성 상실이 원인이다. 연젠가부터 야당의 치열함이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재벌과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야권은 거기에 속하지 못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변해야 한다. 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가야한다. 이제라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미국 민주당에서 오바마 상원의원은 가장 정치적으로 원편이었다.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샌더스는 오바마보다 더 왼쪽 성향이다. 저는 합리적 진보며 김대중 노선이다. 국민의당 성공을 위해서라도 양날개가 필요하다.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개성공단 폐쇄의 배후는 북한 붕괴론이다. 밀어붙이면 북은 넘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이성적이며 무모하고 무지한 결정이다. 대북 포용정책과 경제 공동체 구성을 통한 점진적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한 것이다. 햇볕정책의 성과를 전부 부정한 것이다. 전문가들

과 토론 과정이 없었고 의사 결정 과정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독단적 결정이다. 여기에 야당도 실종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에 있었다면 국민과 함께 개성공단을 단지 말라고 투쟁했을 것이다.

-햇볕정책 실패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쪽에서 햇볕정책이 북 핵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증오의 시대를 용서와 화해의 시대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연정선에서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햇볕정책 실패를 직접 연계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아무런 대북 수단이 없다. 미국과 중국만 쳐다보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 사회에 의탁한 한심한 결정이다.

-대안은 뭐가.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가능성은 극히 적어진다. 한반도는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열강의 화약고가 된다.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서야 한다. 위기 일수록 북한과의 접촉과 대화를 필요하다. 대화가 유약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외교의 수단이다. 대화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제2의 동학혁명론을 제기하는데 ▲조선시대 동학혁명의 동력이 수세와 소작료였다면 현대 사회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핵심은 자산격차, 부등산 격차다. 결국 임대료다. 현대판 소작료다. 전라도 아들, 딸들이 대도시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죽도록 일해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절망의 사회다. 자산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제2의 동학혁명이다. 제2의 동학혁명은 봉기가 아닌 입법으로 이뤄진다. 공정 임금법과 반값 아파트 특별법, 직접시공제 등 서민을 위한 입법 혁명에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DJ 우산이 없어진 이후, 호남 정치권의 협력과 소통 구조가 약해졌다. 호남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소지역주의를 넘어서 한 목소리로 파이를 키워야 한다. 호남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광주·전남과 전북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대선 패배가 뼈아팠다. 허공을 듣고 정치를 했다는 자성을 했다. 정치는 민생의 현장에서 배워야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민초들이 원하는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광주·전남지역 민심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해 돈을 많이 벌어 효도하려 했는데 부도를 맞고 돌아온 아들과 같은 심정이다. 효도하고 싶다. 제 고향 호남이 못살고, 차별받고, 사회 구조의 가장 아래에 깔려 있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호남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공천 신청 마감...안철수·천정배계 대거 배치

현역-신인 사활 건 혈투 시작

국민의당이 창당 후 첫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정치신인의 도전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대표와 ‘뉴DJ론’을 주창하는 천정배 대표,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주계 측 정치신인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호남 ‘물갈이’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민의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천 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울에는 안 대표계인 김하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계의 김정현 대변인이 도전장을 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고향인 곡성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만 곡성이 어느 선거구에 병합될지 예상하기 힘들어서 일단 접수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갑 최초의 4선 고지를 노리고 있는 김동철 의원의 상대로는 안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가수 황혜영씨의 남편 김경록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역 뒷발을 다지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는 당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에 맞서 안 대표의 수석보좌관 출신인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안철수와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정책포럼’ 소속 정진욱 새정치경제아카데미원장이 대항마로

나섰다. 또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핵심 측근인 김명진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임내현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에서는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이 공천을 신청했다.

고흥·보성의 경우 김승남 의원은 안 대표의 대선캠프 대외협력위원 출신인 김철근 전라중보본부 부본부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또 현역 의원이 경선 상대는 아니지만 광주 서구갑에는 천 대표 측의 김재두 대변인과 영입 인사인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견대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김경진 변호사와 천 대표 측 홍인화 전 광주시의원, 순화규 전 대표계인 김유정 전 의원 등이 본선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안 대표와 천 대표가 경쟁적으로 자신의 측근을 전진 배치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긴장과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공천 시행세칙이 마련되고 공천 절차에 돌입할 경우 개파 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현재의 경선 구도는 전라공천과 선거구 확정 후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1호 정치혁신공약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국민의당은 제1호 정치혁신 정책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의원을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지역구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환 요건을 국회 의원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 부위

위원장 문병호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국민파면제’가 도입되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국민이 제안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또는 당 차원에서 반영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내에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백원'광주안과** 의원

#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시간 : 스아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원'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증-68156호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